

연구논문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ultural Capita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rea

전혜진^{a)} · 김수정^{b)} · 최셋별^{c)}

Hye-Jin Jun · Su Jung Kim · SetByol Choi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을 설명함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과, 특히 교사의 역할에 주목한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실제로 교사들이 지배계급의 문화전수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선정한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4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와, 2011년 <문화생산과 소비의 지평: 문화자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접근> 연구단이 실시한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 중 본인의 문화소양에 대한 평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친숙도, 고급예술 작품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문항들을 일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국의 성인남녀 및 전국의 중상계급과 비교할 때 본인의 문화 소양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한편, 고급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선호도와 참여도를 보였으며,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자본 보유량에 있어서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풍부한 양의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자본의 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사 여부가 그들의 문화자본 보유량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본 연구는, 그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명 받지 못한 교사들의 문화자본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 부르디외의 주장대

a)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1부 연구원

b)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c)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최셋별.

E-mail: choseta@ewha.ac.kr

로 교사들이 학교 공간에서 지배계급의 문화전수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 재생산의 메커니즘 내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두 번째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교육불평등, 문화재생산론, 문화자본, 교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f teachers are truly qualified to be culture initiators of the ruling class based on Bourdieu's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as theoretical resource, which e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e role of teach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capital which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rea hold. Two survey data sets are utilized. One is conducted on 470 teachers in Seoul through a sample allocated proportional to region. The other is 'Study on the Perception of Cultural Capital' conducted in 2011. From these data sets, questionnaires on evaluation of one's cultural knowledge, preference and familiarity of high-culture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high art were used for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adults and middle class nationwid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rea evaluated their cultural knowledge highly, show higher level of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in high-level culture, and have the highest level of recognition in art works. The group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rea holds an abundant amount of cultural capital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fact whether being a teacher do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cultural capital holding even when controlling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can affect the holding of cultural capital. Despite its theoretical importance,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since it was conducted on cultural capital of teachers who have not studied enough in the past. Moreover,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each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within the mechanism of unequal social structure reproduction in their school space with the condition of being a cultural initiator in the ruling class as Bourdieu argued.

Key words: education inequality,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cultural capital, teacher

I. 서론

한국전쟁 이후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산이었던 과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자, 가진 것 없는 개인이 사회적 성공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 동안 이 같은 교육불평등 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력으로 대별되는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업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여전히 학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그의 문화재생산 이론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함에 있어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지배계급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전수하고, 또 학생 평가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보네위츠 2000). 그에 따르면 교사는 무의식적으로 지배계급의 성향을 보유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이들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성향, 즉 문화자본이다. 교사의 문화자본이 갖는 이 같은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사회불평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문화자본은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주요 연구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측정하고, 나아가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이 그들이 교사라는 점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 이론

20세기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라 평가받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경로와 제도, 행위자(행위 주체), 그리고 인식(지식)을 발견해 내는 것을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주장하며, 「재생산」(1977) 및 「구별짓기」(1987) 등 그의 유명 저서들을 통해 지배계급의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정당성의 획득이 어떻게 계급체제 유지에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르디외는 그가 ‘문화자본’이라 명명한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본을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키기를 거부하며 이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회적 경쟁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로 폭넓게 정의한 부르디외는, 자본을 크게 화폐,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를 띠는 ‘경제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 경험의 형태로 드러나는 ‘문화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전수되는 과정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자본과 달리, 문화자본은 그것의 전수가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계급재생산 과정을 은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부르디외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문화자본이 어떻게 다시금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라는 기관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재생산」(1977)에서 가정에서 체화된 문화자본의 하나로 개개인에게 전수된 언어습관이나 태도 등이 학교라는 제도의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통해 개개인의 우수함이나 학위증으로 인정을 받고, 이를 통해 사회계급의 재생산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추적하였다(최셋별 2006a).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가 단순히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중립적 공간이 아닌, 지배계급의 문화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보편적 지식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 즉 이들의 문화자본이 학위라는 장치를 통해 ‘제도화된’ 자본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공간임을

밝혀내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계급재생산 기관으로서 학교는 특정한 언어적·문화적 성향을 선호하는데, 이 성향은 곧 지배계급의 성향으로 지배계급 출신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같은 성향들을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습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취학 이후 다른 계급 출신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 지배계급 출신 학생들의 문화자본이 이들로 하여금 학교공간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한 ‘선의’를 가진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같은 성향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주장이다.

지배계급의 가정 내에서 언어적·문화적 능력의 형태로 자녀에게 전수된 문화자본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평가를 거쳐 학업성취의 형태로 전환된다. 결국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불평등은 개인의 학업성취가 이후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전환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가정에서 전수되어 계급재생산의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는 ‘문화자본’과, 그것의 제도화 과정을 교묘히 은폐시켜 사회불평등 재생산에 기여하는 ‘학교’, 특히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기능하는 ‘교사’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실제로 지배계급 출신의 학생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감각을 지니고 있는지 이들의 문화자본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이 소개된 이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교육사회학과 문화사회학 내에서 끊임없이 집적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계급별 문화자본의 차이가 계급재생산의 핵심 기제가 된다는 부르디외의 주장에 따라 각 사회계급별 문화자본 보유량에 차이가 있는지 계급과 문화자본 간 상동성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이 같은 차이가 실제 계급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문화자본 보유에 있어 계급간의 차이가 실재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들 중 특히 가정 내에서의 문화자본 전수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계급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라로(Lareau 1987)는 계급위치에 따른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지적하며, 상층계급일수록 부모가 학교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여 교사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반면, 하층계급 부모들은 자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학교 자체를 어려워 해 교사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계급별 학부모들의 태도는 교사들의 해당 계급 학생들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라로와 호밋(Lareau & Horvat 1999) 역시 흑인 학부모들에 대한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 학부모들의 사회계층 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교사들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있어 이들의 긍정적이고 지지적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일수록 교사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이 같은 교사의 기대치에 더 잘 부응하며 결과적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해결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뒤마이즈(Dumais 2006)는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계급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높고 학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있어 '품성'이나 '사회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들어 각 계급별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환경이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의 문화자본을 축적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학생들의 여가활동 등 교외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출신계급별 양육환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Jaynes & Williams 1989; Hochschild 1995; Lareau 2000). 이 연구들은 상층계급 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합창 활동, 악기레슨, 스포츠 클럽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매우 바쁘게 수행하는 반면, 하층계급 학생들은 단조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속도 역시 매우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급에 따라 학생들이 보내는 하루 일과의 내용 역시 매우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최셋별(2003; 2006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여가/문화생활 향유 양상을 계층별로 밝힌 이 연구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계층에 따라 향유하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르며, 여가시간의 활용 역시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계급재생산에 있어 문화자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부

모 혹은 학생 본인의 문화자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De Graaf 1986; 1988; Katsillis & Rubinson 1990; De Graaf, De Graaf, & Kraaykamp 2000). 미국 사회에 대한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자본을 고급문화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정도로 측정하여 영어, 역사, 사회,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디마지오(DiMaggio 1982)는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의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 문화자본이 계급재생산의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 Mohr 1985)는 1960년대 수행된 Project Talent 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11년 간의 추적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급문화에 대한 선호 및 참여 정도로 측정된 문화자본이 학업성취, 대학입학 및 졸업, 대학원 진학, 나아가 배우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드 그라프(De Graaf 1986)는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5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해 왔다는 점을 들어 문화자본에 대한 부르디외의 이론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는데, 2년 뒤 서독을 배경으로 수행한 연구(De Graaf 1988)에서는 부모들의 문화자본이 자녀들의 언어 성적과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각 나라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 사회를 배경으로 한 카실리스와 루빈슨(Katsillis & Rubinson 1990)의 연구는 그리스의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성적과 국가 자체에서 시행하는 표준화된 시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의 형태로 측정된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드 그라프와 드 그라프, 크레이캬프(De Graaf, De Graaf, & Kraaykamp 2000)는 1992년 네덜란드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고급문화에 대한 취향과 독서습관으로 다르게 조작화 한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모의 고급문화 참여보다는 부모의 독서습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 문화자본의 형태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대학입시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의 학구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많

은 연구들의 결과들은 이 같은 한국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계급과 자녀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중재시켜 주는 문화자본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장미혜(2002)는, 2001년 775사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모의 문화자본이 계급이나 성, 거주지, 교육연수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대학생들의 수험능력 시험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때 부모의 문화자본을 고급문화에 대한 취향과 독서습관 등의 인지능력으로 구분할 때 부모의 독서습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백병부와 김경근, 변수용 등의 연구자들 역시 독서취향으로 정의한 학생의 문화자본만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활동으로 측정한 문화자본의 경우 오히려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계급재생산에 있어 문화자본이 갖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백병부·김경근 2007; 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한편, 문화자본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화한 장상수(2008)는 문화적 소유물, 가정의 교육자원, 문화적 소통 등으로 조작화한 부모의 문화자본은 자녀의 성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고급문화에 대한 소비로 조작화한 자녀의 문화자본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작화하든 문화자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적을 매개하는 정도는 낮다는 점을 들어 계급재생산에 대해 갖는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2007년 한국교육중단자료를 비교한 성기선(2010)의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포부 수준이나 행동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불평등의 재생산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계급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이 같은 문화자본의 계급별 상이한 분배가 부르디외가 주장한 바대로 실제 계급재생산에 기여하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와 국가를 배경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화자본의 측정 방식과 그에 따른 문화자본의 영향력 유무 및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르디외가 지목한 재생산 기관으로서의 학교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화된 문화자본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지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연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교사에 대한 연구는 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맥더못(McDermott 1977)을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생의 학습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Rosenthal & Jacobson 1968; Rist 1977; Rosenbaum 1980), 계급재생산의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백병부(2008;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중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교사들의 출신계급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차이는 그들의 수업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백병부 2008). 그는 또 다른 연구(2012)에서 이 같은 교사들의 차이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문화자본의 척도로 활용되어 온 고급문화활동이나 독서 향유 정도보다는 학생들의 인성을 근거로 직간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학업적 보상이 인색한 이 같은 현상이 한국 교육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문화전수자로서 교사가 갖는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고급문화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고급문화활동을 많이 경험한 교사들에게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더 많은 관심이나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백병부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통계적 검증에 기반한 양적 조사가 아닌 사례조사와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점수와 같은 학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충분히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 이들의 문화자본 보유가 그들이 교사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부르디외가 주장한 것처럼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문화전수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이 같은 작업은, 그 이론적·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사회학 및 문화사회

학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교사들의 문화자본에 초점을 맞춰 문화재생산론 연구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가지며,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학생평가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Ⅲ. 자료와 측정

1. 조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교사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들이 실제로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전수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양적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교사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2012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별 격차를 통제하고자 지역별 비례에 의한 비례할당표집 방식에 의거해 표집하였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교사 인원과 지역별 교사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시 소속 11개 교육청을 9개 행정자치 구역별로 나누고¹⁾, 각 구역별로 1~2개 학교를 표집하여 전체 11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초등학교 교사 전체 470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들을 제외한 총 3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자료를 통해 측정한 교사들의 문화자본 보유량을 전국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의 문화자본과 비교하는 데에는 2011년 <문화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지평: 문화자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접근> 연구단이 실시한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을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해 비례할당한 조사구를 이용하여 다단계 층화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선정한 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자료에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조사 자료들을 병합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일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

1) 중부 교육청, 동부/성동 교육청, 성북/북부 교육청, 서부 교육청, 강서 교육청, 남부 교육청, 동작 교육청, 강남 교육청, 강동 교육청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양적 자료 분석에는 PAW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교사집단과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의 문화자본 보유량을 비교하여 실제로 교사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렇게 비교한 교사집단의 문화자본이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아닌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화자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문화자본을 크게 ‘문화 소양’,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 ‘문화 지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디마지오에 의해 개발된 이후 많은 문화자본 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문화자본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문화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지평: 문화자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접근> 연구단의 설문도구²⁾를 사용하였다. 디마지오는 문화자본을 ‘태도(attitude)’, ‘활동(activities)’, 그리고 ‘정보(information)’의 세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때 문화소양은 태도 차원에,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는 활동 차원에, 그리고 문화지식은 정보 차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문화 소양은 “귀하께서는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인의 문화적 소양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응답자로 하여금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한 이 문항은, 조사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나는 문화적 소양이 깊다”, “나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 “나는 높은 미적 기준을 가졌다”, “나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교양을 가졌다”의 항목으로 구성된 ‘하이브로우 성향’과, “나는 다양한 취향을 가졌다”, “나는 최신 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신 문화 트렌드를 잘 파악한다”, “나는 하나의 문화에 정통하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으로 구성된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으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³⁾

2) 설문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론적 근거는 최셋별·이명진(2012, 2013)을 참조하십시오.

3) 하이브로우와 옴니보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최셋별(2006a:138), 한준·한신갑·신동

하이브로우란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따르면 우월한 지식 또는 우월한 문화를 갖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하이브로우’, ‘옴니보어’ 논의는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에 대한 반박들에 대한 피터슨과 심커스(Peterson and Simkus 1992)의 논의에서 시발되었다. 피터슨과 심커스는 예술적인 취향이 여전히 지위를 의미 있게 하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미국 지식인들의 경우 고급예술(fine arts)만을 소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을 기점으로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은 하이브로우 스nob (highbrow snob)로부터 옴니보어(omnibore)라는 문화적 폭넓음의 차이로 그 논의가 확대되었다(Bryson 1996; Erickson 1996; Peterson & Kern 1996; 최셋별 2006a: 239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소양 두 요인을 그 내용에 맞게 각각 ‘하이브로우 성향’과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는 각각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활동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라는 문항과,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활동을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극 관람’, ‘뮤지컬 관람’,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공연 관람’, ‘무용 공연(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관람’, ‘미술전시회 관람’, ‘문학작품 읽기’의 6가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해 문화 소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선호)/전혀 한 적이 없다(참여)’에서 ‘5: 매우 좋아한다(선호)/매우 자주했다(참여)’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지식은 “클래식 음악작품/미술작품/문학작품에 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는 클래식 음악작품과 미술작품, 문학작품 15개씩⁴⁾이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작품을 아는지 여부(‘1: 안다’, ‘0: 모른다’)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 이후, 각 문항은

엽·구자숙(2007)을 참조하시오.

- 4) 문항에 제시된 클래식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다: (클래식음악작품) “사계”, “위모레스크”, “녹턴”, “메시아”, “G선상의 아리아”, “마술피리”, “엘리제를 위하여”, “호두까기 인형”, “평균율”, “왼손을 위한 피아노협주곡”, “랩소디 인 블루”,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즉흥환상곡”, “두 개의 아라베스크”, “운명”; (미술작품) “해바라기”, “비너스의 탄생”, “만종”, “천지창조”, “모나리자”, “절규”, “아비뇽의 아가씨들”, “키스”, “피리 부는 소년”, “눈 내리는 마을”, “카니발”, “거인”, “밤의 카페”, “레스타크의 집”, “테라스에서”; (문학작품) “토지”, “광장”, “소나기”, “태백산맥”, “한여름 밤의 꿈”, “파우스트”, “안나 카레리나”, “신곡”, “죄와 벌”, “변신”, “마담 보바리”, “양철북”, “꿈의 해석”, “자본론”, “감시와 처벌”

아는 작품 개수를 합산한 합성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응답자 본인의 성별, 혼인여부, 연령, 서울 거주 여부, 교육수준, 가구계급, 월평균 가구소득, 교사여부 등 응답자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 변수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가구계급, 직계가족의 자본 보유량(경제자본, 학력자본, 외국 문물에 대한 친숙도) 등 응답자의 출신 배경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고, 응답자의 혼인여부는 기혼, 별거, 이혼, 사별을 1, 미혼을 0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 변수의 경우, 서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문화활동 참여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거주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의 경우 22세에서 89세로 측정되었으며(평균 48.5세) 연속변수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학력으로 정의된 응답자 및 응답자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대학원 이상의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재학 이상을,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를 기준변수로 한 더미변수로 조작화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현 가구계급 및 응답자 아버지의 가구계급은 홍두승(1988)의 계급모형⁵⁾에 따라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기타계급의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역시 신중간계급을 기준변수로 한 더미변수로 조작화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 199만 원 이하'에서 '7: 700만 원 이상'의 범위를 갖는 서열변수로 측정되었다. 교사여부는 교사를 1, 비 교사를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계가족의 경제자본은 '자가용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다', '별장을 갖고 있다', '골프 회원권이 있다'의 항목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합산하였으며, 직계가족의 학력자본은 '박사학위가 있다', '국내외 명문대 출신이다', '고등고시 시험 등에 합격한 적이 있다'의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직계가족의 외국 문물에 대한 친숙도는 '할 줄 아는 외국어가 2개 이상 있다', '외국어로 잡지나 신문을 읽는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 '해외여행을 1년에 2회 이상 간다'의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5) 본 연구는 직업을 중요한 계급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부르디외의 논의에 기반, 직업에 근거한 홍두승의 계급 모형을 따른다.

〈표 1〉 본 연구의 변수 정의 및 기초 통계량

구 분	서울 초등 교사 ⁶⁾		전국 성인남녀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문화 소양					
하이브로우 성향	3.31	.634	2.70	.665	1-5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트렌드 중시	3.50	.661	3.11	.659	1-5
문화 활동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	3.89	.610	2.86	.723	1-5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2.76	.682	1.99	.762	1-5
문화 지식					
클래식 음악작품에 대한 인지 정도	11.92	2.399	6.25	3.993	0-15
미술작품에 대한 인지 정도	10.60	2.520	5.49	3.661	0-15
문학작품에 대한 인지 정도	11.41	2.816	6.50	3.773	0-15
〈독립변수〉					
성별(여성=1)	.90	.303	.51	.500	0-1
혼인여부(기혼/별거/이혼/사별=1)	.72	.448	.77	.422	0-1
연령	41.97	10.277	47.30	14.503	22-89
지역: 서울 거주 여부(서울=1)	1.00	.000	.21	.406	0-1
교육수준(최종학력)(대학재학 이상=1)					
중졸 이하	.00	.000	.15	.360	0-1
고졸 이하	.00	.000	.38	.486	0-1
대학원 이상	.38	.487	.03	.161	0-1
가구계급(신중단계급=1)					
중상계급	.16	.363	.06	.239	0-1
구중단계급	.00	.000	.26	.440	0-1
근로계급	.00	.000	.13	.340	0-1
도시하류계급	.00	.000	.05	.220	0-1
기타계급	.00	.000	.08	.274	0-1
월평균 가구 소득	4.19	1.971	3.69	1.792	1-7

(계속)

(계속)

구 분	서울 초등 교사		전국 성인남녀		
아버지 교육수준(최종학력)(중졸 이하=1)					
고졸 이하	.28	.451	.29	.454	0-1
대학재학 이상	.40	.492	.14	.343	0-1
대학원 이상	.08	.264	.01	.113	0-1
출신계급(신중간계급=1)					
중상계급	.10	.305	.04	.199	0-1
구중간계급	.12	.321	.21	.404	0-1
근로계급	.10	.305	.09	.291	0-1
도시하류계급	.04	.198	.04	.184	0-1
기타계급	.12	.321	.44	.497	0-1
직계가족 자본					
경제자본	.49	.651	.34	.637	0-3
학력자본	.51	.732	.25	.611	0-3
외국문화 친숙도	.82	1.076	.39	.860	0-4
교사여부(교사=1)	1.00	.000	.00	.000	0-1

IV. 연구 결과

1. 교사의 문화자본 보유량

1) 문화 소양

문화적 소양에 대한 자기평가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

- 6) 2011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24.2%, 여성이 75.8%로 성별 비대칭 현상이 2005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경우,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서 보고하는 성별 구성비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비대칭은 현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경향이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으로 조사대상 교유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연령별 교원 구성비의 경우, 2011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대의 비율이 19.7%, 30대는 34.3%, 40대는 24.7%, 50대는 17.7%, 60대 이상은 3.6%이라고 밝히고 있어 본 자료가 초등학교 교사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문화 소양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항 목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전국 성인남녀	전국 중상계급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	3.31(.634)	2.70(.665)	3.10(.571)
<i>t</i> -통계량		17.978 ***	6.103 ***
옵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	3.50(.661)	3.11(.659)	3.41(.602)
<i>t</i> -통계량		11.096 ***	2.561 *

* $p < .05$ ** $p < .01$ *** $p < .001$

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문화와 관련한 응답자들의 주관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교사들의 문화소양에 대한 자기평가 정도를 측정하여 일표본 T검정을 통해 다른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표 2〉는 문화 소양에 대한 교사들의 자기평가 평균 점수를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급문화 취향으로 대별되는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다양한 문화적 대상물에 대한 취향 및 최신 유행에 대한 민감도로 대별되는 ‘옵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의 두 경우 모두 서울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집단의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 평균 점수는 3.31점으로 전국의 성인남녀와는 0.61점, 전국 중상계급과도 0.21점 차이를 보였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 집단의 ‘옵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 평균 점수는 3.5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성인남녀와는 0.39점, 전국의 중상계급과는 0.09점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⁷⁾

7) 서울은 문화활동에 자주,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도시로 서울 거주 여부가 문화적 소양, 문화 활동, 문화지식 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차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만을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서울 거주 성인남녀, 서울 거주 중상계급보다 ‘하이브로우 성향’과 ‘옵니보어 및 최신 문화 트렌드 중시 성향’의 문화적 소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옵니보어 및 최신 문화 트렌드 중시 성향’의 문화적 소양의 경우 전국 중상계급보다 오히려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문화 소양 측면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더 많은 양의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절대적인 평균값은 ‘옴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이 높는데 비해 다른 집단과 특히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이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자기평가는 고급문화에 방점을 둔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급문화 활동 선호 및 참여

문화 소양에 대한 자기평가가 문화적 성향에 관한 내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 정도는 문화적 성향에 관한 외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는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적 성향을 교사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문화자본 측정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얼마나 많이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6개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 및 참여도 평균 점수를 구하고, 일표본 T검정을 통해 이를 전국 성인남녀 및 전국 중상계급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였다. <표 3>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국 성인남녀 및 전국 중상계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를 보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

<표 3>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도 평균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항 목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전국 성인남녀	전국 중상계급
고급문화 활동 선호 정도	3.89(.610)	2.86(.723)	3.09(.608)
t-통계량		31.648 ***	24.557 ***
고급문화 활동 참여 정도	2.76(.682)	1.99(.762)	2.35(.702)
t-통계량		21.205 ***	11.281 ***

* $p < .05$ ** $p < .01$ *** $p < .001$

도는 3.89점으로 전국의 성인남녀보다 1.03점 더 높았고, 전국의 중상계급보다도 0.8점 더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사들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약 4점에 가까운 선호 점수를 보인 것과는 달리 3점(보통이다)에 조금 못 미치는 2.76점의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성인남녀(1.99점) 및 전국의 중상계급(2.35점)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치로, 교사들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수준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⁸⁾

이 같은 연구 결과 중 특히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고급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호와 달리 참여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여유, 그리고 이를 즐기기 위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부르디외(2006)는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만을 조사할 경우 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나 신앙 고백의 표현만을 듣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측정할 때 반드시 직접 참여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경제자본을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상계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사 집단의 특수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3) 문화 지식

〈표 4〉는 클래식음악작품과 미술작품, 문학작품에 대한 교사 집단의 인지 평균과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의 인지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고급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밑바탕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끝으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같은 지식을 다른 집단에 비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문화적 대상물에 대한 인지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로 제시된 15개 클래식 음악작품 중 교사집단이 알고 있는 작품은 약 12개(11.92개)로, 평균 약 6개(6.25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국 성인남녀보다 약 2배 더 많은 클래식 음악작품을 알고 있었

8)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서울에 거주하는 중상계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강했으며($p=.000$),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표 4〉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도 평균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항 목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전국 성인남녀	전국 중상계급
클래식 음악작품 인지정도	11.92(2.399)	6.25(3.993)	8.76(3.245)
<i>t</i> -통계량		44.505 ***	24.816 ***
미술작품 인지정도	10.60(2.520)	5.49(3.661)	7.76(3.402)
<i>t</i> -통계량		38.150 ***	21.199 ***
문학작품 인지정도	11.41(2.816)	6.50(3.773)	9.12(3.241)
<i>t</i> -통계량		32.783 ***	15.278 ***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약 9개(8.76개) 작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상계급보다도 약 3개 더 많은 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술작품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평균 약 5개(5.49개) 미술작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국 성인남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약 11개(10.60개) 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개(7.76개) 작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상계급보다도 3개가량 많은 미술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작품 인지의 경우, 전국 성인남녀는 평균 약 7개(6.50개), 중상계급은 평균 약 9개(9.12개)를 알고 있어 클래식 음악작품이나 미술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역시 교사들은 전국 성인남녀보다 약 4개, 중상계급보다는 약 2개가량 더 많은 약 11개(11.41개) 작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⁹⁾

2. '교사 여부'가 문화자본 보유량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까지 '교사'라는 특정 직업군이 문화 소양,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 그리고 문화 지식의 세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더 많은 양의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9) 위 같은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중상계급보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이 클래식 음악, 미술작품, 문학작품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은 특정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성별이나 연령, 서울 거주 여부, 학력, 소득, 그리고 출신계급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 절에서 확인한 교사들의 문화자본 보유량이 실제로 그들이 ‘교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사’ 여부가 그들의 문화자본 보유량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문화 소양

<표 5>는 문화 소양의 두 측면인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을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 그리고 교사 여부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해 28.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독립변수로 고려된 11개 변수 중 응답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현재 가구계급, 월평균 가구소득, 출신계급, 직계가족 보유자본, 그리고 교사 변수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자의 혼인여부, 연령, 서울 거주 여부,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본인의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나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재학 이상일수록, 가구계급의 경우 구중간계급 이하의 계급보다는 신중간계급 이상일수록, 그리고 월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 중 출신계급에서는 신중간계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타계급 출신인 경우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83$), 직계가족의 보유자본 중에서는 경제자본($\beta = .106$)과 외국문화에 대한 친숙도($\beta = .107$)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사들이 학교에 편입되기 이전에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많은 독립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라는 특성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2$).

다음으로,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술한 독립변수들이 갖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에 포함된 11개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해 26.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중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현재 가구계급, 월평균 가구소득, 출신계급, 그리고 직계가족의 보유자본 변수가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본인의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중졸 이하나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옴니보어 성향의 문화 소양’ 점수가 높았다. 현재 가구계급의 경우 신중간계급을 기준으로 할 때 기타계급이 ‘옴니보어 성향의 문화 소양’을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마찬가지로 ‘옴니보어 성향의 문화 소양’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 중 출신계급에서는 신중간계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타계급 출신인 경우가 ‘옴니보어 성향의 문화 소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71$), 직계가족의 보유자본 중에서는 경제자본($\beta = .128$)과 외국문화에 대한 친숙도($\beta = .067$)가 ‘옴니보어 성향의 문화 소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에 있어서 교사 여부는 특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특성이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보다는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분석 결과는 교사들이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사회적 정통성을 갖는 고급 문화로 대별되는 지배계급 문화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르디외가 그의 재생산이론을 통해 학교 공간에서 요구되는 문화가 지배계급의 문화와 상동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교사가 실제로 학교 공간에서 지배계급 문화의 전수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문화 소양’을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	옴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
	B(β)	B(β)
(상수)	2.878	3.583
성별	.067(.049) *	.056(.041) *
혼인	-.056(-.034)	-.054(-.034)
연령	-.002(-.034)	-.009(-.199) ***
지역(서울 거주 여부)	.009(.006)	-.020(-.014)
본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463(-.228) ***	-.319(-.162) ***
고졸 이하	-.194(-.133) ***	-.121(-.085) ***
대학원 이상	.080(.029)	.033(.012)
현재 가구계급		
중상계급	.065(.025)	.063(.025)
구중단계급	-.084(-.051) *	-.029(-.018)
근로계급	-.124(-.058) **	.021(.010)
도시하류계급	-.136(-.041) *	-.123(-.038) †
기타계급	-.103(-.039) †	-.138(-.053) *
월평균 가구 소득	.018(.046) *	.025(.069) **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10(-.007)	-.002(-.001)
대학재학 이상	.066(.036)	.042(.024)
대학원 이상	.041(.008)	-.012(-.002)
출신계급		
중상계급	.000(.000)	-.035(-.011)
구중단계급	.002(.001)	-.055(-.033)
근로계급	.005(.002)	-.006(-.003)
도시하류계급	-.021(-.006)	-.089(-.025)
기타계급	-.117(-.083) **	-.097(-.071) *

(계속)

(계속)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 소양	옴니보어/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 소양
	B(β)	B(β)
직계가족 보유자본		
경제자본	.115(.106) ***	.134(.128) ***
학력자본	.029(.027)	.014(.013)
외국문화 친숙도	.082(.107) ***	.050(.067) **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190(.092) ***	.061(.030)
<i>F</i> 값	38.001 ***	34.315 ***
<i>R</i> ² 값	.296	.275
수정된 <i>R</i> ² 값	.288	.267
사례 수	2287	2287

* $p < .05$ ** $p < .01$ *** $p < .001$

2) 고급문화 활동 선호 및 참여

<표 6>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와 참여 정도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의 경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지만,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의 경우 자료가 양의 왜도(skewness)를 지니고 있어 '0: 전혀 한 적이 없다'와 '1: 한 적이 있다'로 재코딩하여 지난 1년간 보기로 제시된 고급문화 활동을 몇 개나 했는지 합계를 내어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고려된 11개 변수 중 응답자의 혼인여부, 서울거주 여부,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와 유의한 인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고학력일수록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가 높았으며, 이때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과 중졸 이하 및 고졸 이하 간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다. 현재 가구계급의 경우, 기준이 된

〈표 6〉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고급 문화활동 선호	고급 문화활동 참여
	B(β)	B(β)
(상수)	2.986	3.640
성별	.270(.171) ***	.236(.050) *
혼인여부	.041(.022)	-.019(-.003)
연령	-.004(-.073) *	-.004(-.025)
지역(서울 거주 여부)	.019(.011)	.719(.143) ***
본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3(-.183) ***	-1.315(-.192) ***
고졸 이하	-.177(-.106) ***	-.385(-.078) ***
대학원 이상	.114(.037) †	-.027(-.003)
현재 가구계급		
중상계급	-.045(-.015)	-.150(-.017)
구중간계급	-.091(-.049) *	-.524(-.095) ***
근로계급	-.146(-.059) **	-.196(-.027)
도시하류계급	-.188(-.049) *	-1.002(-.089) ***
기타계급	-.147(-.048) *	-.759(-.084) ***
월평균 가구 소득	.010(.022)	.084(.065) **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73(.042) †	.401(.078) **
대학재학 이상	.100(.048) *	.467(.076) **
대학원 이상	-.047(-.009)	.024(.001)
출신계급		
중상계급	.037(.010)	-.238(-.022)
구중간계급	-.094(-.047) *	-.042(-.007)
근로계급	-.058(-.022)	-.242(-.031)
도시하류계급	-.023(-.006)	-.161(-.013)
기타계급	-.065(-.040)	-.165(-.035)

(계속)

(계속)

	고급 문화활동 선호	고급 문화활동 참여
	B(β)	B(β)
직계가족 보유자본		
경제자본	.089(.072) ***	.194(.053) *
학력자본	.055(.044) *	.192(.052) *
외국문화 친숙도	.064(.073) **	.210(.081) **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537(.228) ***	-.276(-.036)
<i>F</i> 값	47.969 ***	30.530 ***
<i>R</i> ² 값	.347	.252
수정된 <i>R</i> ² 값	.339	.244
사례 수	2287	2286

* $p < .05$ ** $p < .01$ *** $p < .001$

신중간계급이 타계급에 비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상계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역시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중졸 이하에 비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출신계급 변수의 경우에는 기준이 된 신중간계급과 구중간계급 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중간계급보다 신중간계급 출신인 경우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 중 직계가족의 보유자본 변수는 경제자본($\beta = .072$), 학력자본($\beta = .044$), 외국문화 친숙도($\beta = .073$)가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교사 여부 역시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그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beta = .228$), 이 같은 수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와 단순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넘어 개인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출신계급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전수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11개 독립변수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간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해 약 24.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응답자의 성별, 서울 거주 여부, 교육수준, 현재 가구계급,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계가족 보유자본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서울에 거주할 때($\beta = .143$), 중졸 이하($\beta = -.192$)나 고졸 이하($\beta = -.078$)의 학력보다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았으며, 구중단계급($\beta = -.095$)이나 근로계급($\beta = -.027$), 도시하류계급($\beta = -.089$), 기타계급($\beta = -.084$)보다는 신중단계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급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호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던 월평균 가구소득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경제력이 요구되지 않는 선호와 달리 실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경제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 이하($\beta = .078$) 및 대학재학 이상($\beta = .076$)의 학력일 때 고급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자본($\beta = .053$), 학력자본($\beta = .052$), 외국문화 친숙도($\beta = .081$) 등 직계가족 보유자본 역시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출신계급 변수는 문화활동 참여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지 여부 역시 문화활동 참여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특성 외에 교육수준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문화 지식

마지막으로, 지식 차원의 문화자본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7>은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정도’를 ‘클래식 음악작품에 대한 인지정도’, ‘미술작품에 대한 인지정도’, ‘문학작품에 대한 인지정도’로 나누어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예술작품 인지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클래식 음악작품 인지	미술작품 인지	문학작품 인지
	B(β)	B(β)	B(β)
(상수)	8.599	7.335	8.026
성별	.693(.081) ***	.443(.056) **	.065(.008)
혼인	.539(.054) *	.364(.040) †	.502(.053) *
연령	-.054(-.178) ***	-.047(-.168) ***	-.018(-.062) *
지역(서울 거주 여부)	1.787(.194) ***	1.523(.180) ***	1.668(.193) ***
본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46(-.275) ***	-2.538(-.220) ***	-3.727(-.316) ***
고졸 이하	-1.216(-.135) ***	-.875(-.105) ***	-1.392(-.164) ***
대학원 이상	.620(.037) *	.581(.038) *	.921(.059) **
현재 가구계급			
중상계급	.284(.017)	.025(.002)	.204(.013)
구중간계급	-.841(-.083) ***	-.576(-.062) **	-.909(-.096) ***
근로계급	-1.140(-.086) ***	-1.205(-.098) ***	-1.564(-.125) ***
도시하류계급	-1.254(-.061) ***	-.775(-.041) *	-1.486(-.077) ***
기타계급	-.720(-.043) *	-.703(-.046) *	-1.335(-.086) ***
월평균 가구 소득	.110(.047) **	.090(.042) *	.157(.071) ***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224(.024)	.168(.020)	-.286(-.032) †
대학재학 이상	.873(.078) ***	.557(.054) *	.108(.010)
대학원 이상	.640(.021)	-.382(-.014)	.109(.004)
출신계급			
중상계급	.310(.016)	.235(.013)	-.271(-.015)
구중간계급	-.174(-.016)	-.131(-.013)	-.501(-.050) *
근로계급	.168(.012)	.264(.020)	-.033(-.002)
도시하류계급	-.014(-.001)	.404(.019)	.449(.021)
기타계급	-.672(-.077) **	-.498(-.062) *	-.771(-.094) ***

(계속)

(계속)

	클래식 음악작품 인지	미술작품 인지	문학작품 인지
	B(β)	B(β)	B(β)
직계가족 보유자본			
경제자본	-.024(-.004)	.290(.047) *	-.097(-.016)
학력자본	.229(.034) †	.365(.059) **	.271(.043) *
외국문화 친숙도	.403(.085) ***	.511(.118) ***	.336(.076) ***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1.111(.088) ***	1.344(.115) ***	.764(.064) **
<i>F</i> 값	106.360 ***	84.110 ***	80.162 ***
<i>R</i> ² 값	.540	.482	.470
수정된 <i>R</i> ² 값	.535	.476	.464
사례 수	2287	2887	2287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각 종속변수별 모형의 설명력은 53.5%(‘클래식 음악작품에 대한 인지도’), 47.6%(‘미술작품에 대한 인지도’), 46.4%(‘문학작품에 대한 인지도’)로 나타나 독립변수로 고려된 11개 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앞서 살펴본 문화 소양에 대한 평가나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의 경우보다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독립변수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클래식 음악작품과 미술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학작품 인지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 여부의 경우에는 미혼인 응답자보다 기혼인 응답자가 클래식 음악작품 및 문학작품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에 거주할수록 클래식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클래식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 주는 교육수준, 현재 가구계급,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클래식 음악작품과 미술작품,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인지정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으로 갈수록 세 종류의 예술작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지식 차원의 문화자본을 획득함에 있어 학교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가구계급 역시 신중단계급이 구중단계급 이하의 계급들에 비해 예술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 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 가구계급이 예술작품 인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예술작품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회 및 미술 전시회 참여, 독서활동서 등을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출신배경 관련 변수들은 예술작품 인지정도에 대해 응답자 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다소 약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중졸 이하보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일 경우 클래식음악작품과 미술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학작품 인지정도에서는 학력과 문화 지식 간의 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출신계급 변수의 경우에도 기준이 된 신중단계급과 기타계급, 구중단계급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뿐 응답자의 현재 가구계급 변수의 경우와는 달리 계급 범주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직계가족 보유자본의 경우에는, 외국문화 친숙도 변수가 클래식 음악작품($\beta = .085$), 미술작품($\beta = .118$), 문학작품($\beta = .076$)에 대한 인지정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자본은 세 개의 문화 관련 지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자본의 경우 미술작품 인지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지 여부와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도 간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교사 여부는 클래식 음악작품($\beta = .088$)과 미술작품($\beta = .115$), 문학작품($\beta = .064$)에 대한 인지정도에 모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 면에 있어서도 다른 변수들이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정도에 미치는 것보다 컸는데,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 임용 이후에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가정에서 체화된 문화자본이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재생산되며, 특히 이때 지배계급 문화에 대한 선의를 가진 교사들이 그들의 문화자본을 토대로 지배계급 출신의 아동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체화된 문화자본을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르디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문화자본 측정에 널리 사용되어 온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표에 따라 문화자본을 본인의 문화소양에 대한 평가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및 참여 정도, 그리고 문화지식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화자본을 일표본 T검정을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의 문화자본 보유량과 비교하였으며, 타집단에 비해 더 풍부한 문화자본을 보유한 교사집단의 특성이 그들의 ‘교사 여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에 비해 본인의 문화소양, 특히 고급문화에 대한 소양이라 할 수 있는 ‘하이브로우 성향의 문화적 소양’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들의 ‘교사 여부’가 이 같은 평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소양이라 할 수 있는 ‘옴니보어 및 최신 문화 중시 성향’의 문화소양에 대한 평가 역시 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자기평가가 ‘교사 여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교사집단이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은 고급문화에 대한 소양 평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급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선호도 및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교사 여부’가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정도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급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나 계급 위

치, 월가소득 등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선호와 달리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경제력 등 가용한 자원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문화 지식 측면에 있어서도 전국의 성인남녀 및 중상계급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클래식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에 대한 인지도에 그들의 ‘교사 여부’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고급문화에 대한 태도, 선호 및 참여, 그리고 인지로 측정된 문화자본의 세 차원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족제도와 교육제도의 두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불평등을 통한 사회불평등을 설명한 부르디외의 이론은 이후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를 검증코자 한 많은 후속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출신계급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제로 체화된 문화자본이 학교 내에서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과정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과정과 깊게 연관된 교사라는 행위자에 주목한 본 연구는 부르디외 연구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첫 번째 연구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떤 행동을 통해 계급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에 앞서 교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교사에 대한 문화자본 연구의 초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주장대로 교사들이 학교 공간에서 지배계급의 문화전수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 메커니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두 번째 연구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화자본에 대한 조사’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라는 각각 다른 조사를 병합하여 비교·분석하였기에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의 양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전국의 성인남녀와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해 그 특성을 파악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연구 의의를 가지며, 향후 서울뿐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전국 단위의 교사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경근·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구》 17(1): 23-51.
- 백병부. 2008. “교사의 아비투스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방식의 차이: 중학교 국어과 교사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61-86.
- 백병부. 2012. “문화자본의 보유 및 학업적 보상 양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2(2): 65-95.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변수용·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 보네위츠(P). 문경자 옮김. 2000.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서울: 동문선.
- 부르디외(P). 최종철 옮김. 2006. 《구별짓기》. 새물결.
- 부르디외(P)·파세롱(J.C.). 이상호 옮김. 2003.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3): 83-103.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최셋별. 2003. “초등학생 여가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의 방학 중 여가활동의 계층적 차이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83-104.
- 최셋별. 2006a.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최셋별. 2006b. “한국적 문화자본의 지형으로서의 청소년 여가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4(2): 61-80.
- 최셋별·이명진. 2012. “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선호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3(1): 61-87.
- 최셋별·이명진. 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 한준 · 한신갑 · 신동엽 · 구자숙. 2007.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와 문화적 위계구조.” 《문화와 사회》 2: 29–53.
- 홍두승.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4): 23–45.
- De Graaf, Nan. D. Paul M.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e Graaf, Paul M. 1986. “The Impact of Financial and Cultural Resour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Sociology of Education* 59(4): 237–246.
- De Graaf, Paul M. 1988. “Parents' Financial and Cultural Resources, Grades, and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43(3): 209–221.
- DiMaggio, Paul.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DiMaggio, Paul and John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Dumais, Susan. A. 2006. “Early Childhood Cultural Capital, Parental Habitus, and Teachers' Perceptions.” *Poetics* 34(2): 83–107.
- Hochschild, J.L. 1995. *Facing up to the American Drea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ynes, G.D. and R.M. Williams, Jr. 1989. *A Common Destin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Katsillis, John and Richard Rubinson. 1990.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production: The Case of Gree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70–279.
- Lareau, Annette and Erin M. Horvat. 1999. “Moments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ace, Class, and Cultural Capital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Sociology of Education* 72: 37–53.
- Lareau, Annette. 1987. “Social Class Difference in Family–School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Cultural Capital.” *Sociology of Education* 60: 73–85.
- Lareau, Annette. 2000. “Social Class and the Daily Lives of Children: A Study from the United States.” *Childhood* 7(2): 155–171.

- McDermott, R. 1977. "Social Relations as Contexts for Learning in School."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2): 198–213.
- Peterson, R. and A. Simkus. 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Michelle Lamont and Marcel Fournier(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st, Ray C. 1977. "On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Schooling: The Contributions of Labeling Theory." in Karabel, Jerome and Albert H.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baum, J.E. 1980. "Social Implications of Educational Grouping." in D.C. Berliner(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8.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Rosenthal, R. and L. Jacobson.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접수 2013/9/6 , 수정 2013/10/20 , 게재확정 2013/10/28>